

# 주요 토론내용

김선배 호서대학교 교수

지난 5년 동안 저희 ICT 분야에 몸담고 있었던 100만 여 ICT인은 그야말로 혼돈과 실망속에 생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보통신부라는 확실한 ICT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여 집중된 R&D투자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코리아”라고 하는 위상으로 올려놓았었는데 MB 정부 들어 서면서 그 기능을 몇 개 부처로 분산시켜 운영 관리 하는 바람에 구심점도 없어 지고 세계 시장속에서의 IT 강국 위상도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ICT인들은 5년이 지나면 새로 들어 서는 정부가 반드시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 줄것이라고 믿고 그 희망속에 버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 ICT 분야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새로운, 그야말로 미래창조적 아이템인 OS기반의 스마트폰 창조를 통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발전을 가져왔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한바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나라는 뒤쫓아 가기에 바빴으며 이에따라 나라 전체가 비상 상황까지 간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ICT인들은 더더욱 ICT 전담부처의 부재에 대해 우려하였고 그 필요성들을 설파 하곤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새로운 창조적인, 그래서 세계 시장 소비자들을 사로 잡게 될 그런 상품은 역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콘텐츠 제품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전담해서 컨트롤 해 줄 전담부처의 존재는 시대적으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기 정부에 대해 바라는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모든 ICT 인들의 염원이며 미래창조적 ICT 생태계에 맞는 산업이 국제적 대세인 점에서 볼때 시대적으로 꼭 필요 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ICT 인들의 염원을 받아 들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민주 통합당도 ICT전담부처 설립 공약들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대선과정에 한국인터넷포럼,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ICT 전담부처 설치를 공약하신바 있습니다. 오늘 윤창번 단장님이 발표해 주신 ICT 최강국이라는 제목의 내용도 이러한 ICT인들의 지난 5년 동안의 염원을 해결해주시고자 하는 일환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께서 공약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발표해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ICT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와 VISION을 발표해 주셨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추진과제를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과거의 IT 강국코리아 보다 한단계 더 강한 “ICT 최강국 코리아”를 달성하려면 추진 과제 4에서 제시하는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가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신설”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회자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발빠르고 단기간에 R&D 투자 지원을 해서 단기에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ICT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그 부처의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 ICT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수 있다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원천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R&D투자해도 되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는 그 생태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창조적 ICT 생태계에서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려면 반드시 독립된 ICT 전담부처를 만들고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해서 산학연과 머리를 조아리며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선 기간중 민주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미디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미디어부 부활을 통해서 스마트 혁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켜 다시 한번 과거의 ICT 기적을 재현시키겠노라”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그야말로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ICT인,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인 것이며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5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